
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5월 22일 ~ 2022년 5월 28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지역별 적기모내기와 병해충, 잡초방제에 유의하고 고구마 멸칭재배와 콩 파종에 신경 쓰며, 양과 구의 비대와 마늘 주아재배에 의한 품질향상과 과수 열매숙기, 하계 사료작물 관리에 힘쓴다.

1. 벼농사

- 너무 일찍 모내기하면 무효분얼이 많아져서 통풍이 잘 안되고 병해 발생이 늘어나며, 고온기 등숙에 따른 호흡량 증가로 벼 알의 양분소 모가 많아져 금간쌀이 증가한다.
- 벼 무논점과 재배는 파종 후 10일이 지나면 답수를 실시하되 생육에 따라 12~15일째 중기제초제와 살충제를 살포 후 5일간 5cm로 답수한다.
- 병해충 예방을 위해 이앙 당일 육묘상자에 약제처리를 실시하고, 이앙 당일 상자처리를 하지 못한 논은 모낸 후 최대한 일찍 벼 굴파리류, 애멸구, 벼 물바구미 등의 적용약제를 동시에 처리한다.
- 논 잡초(피, 물달개비, 올챙이고랭이 등)는 모내기 전과 후, 2차례 나눠 방제를 해야 하는데, 씨레질 후 모내기 5일 전에 적용약제로 1차 처리를 하고, 이앙 후 12~15일에 2차로 살포해 준다.

2. 밭작물

- 고구마 비닐 멸칭 재배를 하면 보온, 보습, 토양유실 방지, 잡초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있으며, 심는 시기는 5월 상순부터 6월 중순까지가 적당하다.
- 콩을 기계로 파종할 경우 종자크기에 따라 롤러 힘을 조정하여 적정량을 파종하도록 하고 땅이 비옥하여 웃자람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파종 시기를 다소 늦추도록 하는데 우리지역은 6월 중·하순이 적기이다.
- 옥수수에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 유충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피해를 주므로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거세미나방은 어린모를 갇아 먹어 피해

가 발생하므로 토양살충제를 뿌려준다.

3. 채 소

- 양파는 도복이 시작될 때, 하루에 10a당 약 200kg씩 수량이 증가하며 도복 후에도 지상부가 완전히 고사될 때까지 구의 비대가 계속되므로 도복이 진행될수록 수확량은 많아진다.
- 마늘 주아재배는 마늘종을 뽑지 않고 키우면 끝부분에 작은 마늘 주아가 50~100여개 달리는데, 이 주아를 가을에 심어 다음해 50원짜리 동전크기의 둥근 통마늘을 수확하여 통마늘을 다시 심어 키우면 무병 일반 구 마늘을 수확할 수 있다.
- 마늘 주아재배를 하면 통 마늘을 얻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이 소모되지만 생산비의 약 35%를 차지하는 종구비를 절약할 수 있고, 바이러스 감염 밀도를 낮춰 수량성이 약 15%까지 향상되고 품질도 좋아진다.

4. 과 수

- 사과꽃이 만개하고 2주가 지나면 정상적인 수정여부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으므로 열매숙기를 6월 상순까지 마무리 하되, 1차 열매숙기는 중심과를 남기고 측과를 제거하고, 과일 간격을 대체로 한 뼘 정도 되도록 한다.
- 사과의 경우 과중이 가벼운 소과는 30엽, 중과는 30~40엽, 대과는 40~50엽이 적당하며 배는 소과품종 1과당 25~30엽, 중과는 30~40엽, 대과는 50~60엽을 기준으로 한다.
- 배 착과불량 과원은 열매숙는 시기를 늦추고 상품성이 낮은 과실도 수세조절용으로 착과를 시키도록 하며 착과불량이 심한 경우 1화층에 2개의 과실을 남기고 웃거름은 감량 및 무시용 하도록 한다.

5. 축 산

- 옥수수잎이 6~7매 정도 나온 포장은 ha당 90~100kg의 질소비료를 시비하도록 하는데, 살포시 잎에 이슬이나 물기가 없을 때 작업한다.
- 하계사료작물, 특히 옥수수, 수수 등 화분과 작물에서 발생하는 멸강충은 약제에 대한 내성이 커서 4령 애벌레 이상 되면 약제를 살포해도 쉽게 죽지 않으므로 수시로 관찰하여 발생 즉시 방제토록 한다.